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3.(화) 배포 2026. 11. 3.(화) 10:30

민간·공공 협력으로 결핵 발생 66.2% 감소, 지속 가능한 결핵 퇴치 전략 모색

- 질병관리청, 11월 3일 「2026년 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」 개최
- 고령·외국인·약제내성 결핵환자 등 환자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관리 전략 모색
- 결핵관리 우수 지자체·의료기관 포상 및 광역자치단체 특별상 신설로 광역 단위 역할과 책임 강화

질병관리청(청장 임승관)은 **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**(이사장 유광하)와 함께 **11월 3일**(화)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**「2026년 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**(이하 평가대회)**」를 개최**한다.

<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개요>

- **(일시)** 2026.11.3.(화) 10:30~16:30
- **(장소)** 서울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(컨벤션타워 3층)
- **(참석대상)** 질병관리청, 지자체(시·도, 보건소), 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(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포함), 유관기관 등 약 600명
- **(주요내용)** ❶ 결핵관리 우수기관 포상, ❷ 국가결핵관리사업 성과 및 과제 공유, ❸ 데이터 기반 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발전방안 논의, ❹ 다제내성결핵 치료 제도의 변화와 과제논의

올해는 **민간·공공협력**(Private-Public Mix, PPM) **결핵관리사업**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 **15년이 되는 해**이다. 이번 평가대회는 결핵관리사업의 지난 **성과를 점검**하고, 결핵환자 감소 이후 **새롭게 대두되는 과제에 대응**하기 위한 **전략 모색 및 논의**를 위해 마련되었다. 행사에는 질병관리청, 시·도 및 보건소, 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, 관련 학회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.

1. 민간 · 공공협력 15년, 결핵환자 치료 · 관리의 국가적 기반 구축

민간·공공협력(PPM) 결핵관리사업은 **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료 역량**과 **지방자치단체**의 **지역사회 관리체계를 연계한 국가결핵관리의 핵심 사업**이다. 의료기관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복약과 부작용을 관리하고, 보건소의 결핵관리전담요원은 지역사회에서 치료 중단 우려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하면서 환자가 치료를 마칠 때까지 빈틈없이 지원한다(붙임 1).

2007년 11개 의료기관의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PPM 결핵관리사업은 **2011년 전국으로 확대**된 이후 참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결핵환자 치료·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. **2026년 현재 178개 의료기관이 참여**①하고 있으며, **2025년에는 신고된 결핵환자 4명 중 3명**(75.8%)**이 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치료·관리**②를 받았다.

① PPM 참여 의료기관: ('11년) 97개 → ('20년) 164개 → ('26년) 178개

② '25년 PPM 결핵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(174개소) 결핵환자 관리 비율 75.8%(12,934명)

특히, 치료가 복잡하고 장기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**다제내성결핵**① **환자의 진료를 위해 2020년 다제내성결핵 전문의료기관을**② **지정하고, 의료기관 간 컨소시엄을**③ **운영하여, 적정 약제 선택과 전문적인 진료·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**해왔다.

① **[다제내성결핵]** 결핵 치료의 핵심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모두 내성이 있어 일반 결핵보다 치료기간이 길고 어려움

② **[다제내성결핵 전문의료기관]** 다제내성결핵 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·관리 제공할 수 있도록 진료 경험과 검사 역량 등 진료 인프라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의료기관(69개소)

③ **[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]** 다제내성결핵 전문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로 치료 약제 선택 자문, 의료진 교육 등을 지원

이러한 민간·공공 협력 결과, **국내 결핵 발생은 2011년 50,491명에서 2025년 17,070명으로 66.2% 감소**했다. 이는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료와 보건소의 지역사회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**환자의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, 치료 중단 위험을 줄인 결과이다.**

2. 데이터 기반 관리와 치료제도 개선, 지속가능한 결핵관리 방향 논의

결핵환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**고령·외국인·약제내성결핵 환자 등 보다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대응은 중요한 과제**로 남아 있다.

일률적인 관리를 넘어 환자 특성과 치료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심포지엄에서는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중장기 전략, 데이터 기반 환자관리, 다제내성결핵 치료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(붙임 2 참고).

첫 번째 세션, 「국가 결핵관리사업의 성과 및 과제」에서는 PPM 결핵관리사업의 장기전략 수립 연구 결과와 국내 약제내성 결핵균 유행 현황을 공유한다. 지난 **15년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, 향후 PPM 결핵관리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논의한다.**

두 번째 세션, 「데이터 기반 PPM 사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」에서는 결핵환자의 치료·관리 경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자료를 소개하고, 의료기관별 주요 환자관리 지표*를 분석해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한 사례를 공유한다. **현장에 축적된 자료를 성과 평가와 관리 개선에 활용하는 근거 기반 환자 관리 방안을 모색한다.**

* **[환자 관리 지표]** 진단(약제감수성검사 시행 등), 치료(치료성공률·중단율 등), 사후관리(접촉자 검진 등)의 단계별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별 환자관리 수준을 평가·환류

세 번째 세션, 「다제내성결핵 치료제도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」에서는 신약 사전심사제도*의 10년간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, 최신 진료지침의 근거 및 환자 관리 사례를 다룬다. 새로운 치료요법 도입에 맞춰 최신 임상 근거를 진료 현장에 반영하고, 치료기간 단축과 환자 부담 완화를 통해 환자의 **치료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.**

* **[신약 사전심사제도]**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신약(베다퀼린, 델라마니드 등)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**치료에 사용할 약제 구성을 사전에 검토·승인**하고 **건강보험 급여 적용**을 지원하는 제도로, **신약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내성 확산**을 **방지**하기 위해 '16년 도입

질병관리청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**국가결핵관리의 중장기 방향을 점검**하고, **현장 자료와 경험이 실질적인 관리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.**

3. 우수기관 시상으로 지역사회 결핵관리 역량 강화

이번 평가대회에서는 지난 1년간 △결핵환자 관리, △비순응·입원명령 환자 관리, △집단시설 및 △가족 접촉자조사 등에서 **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유공기관 11곳에 질병관리청장상**을 수여한다.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결핵관리 및 다제내성결핵관리 분야의 **우수 권역·의료기관 18곳에 학회장상**을 수여한다(붙임 3 참고).

특히, 올해는 **광역자치단체 특별상을 신설해 시·도 단위의 결핵관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.** 관할 보건소의 환자 관리와 역학조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광역 단위의 관리 수준을 높이고, **시·군·구 간 관리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.**

첫 광역자치단체 특별상은 **서울특별시**가 수상하였다. 서울특별시는 관할 보건소의 **환자관리, 비순응 환자관리, 접촉자 조사 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둬 광역 단위 결핵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.** 실제로 이번 기초자치단체 부문 수상기관 9곳 중 4곳이 서울특별시 관할 보건소이다.

<2026년 결핵관리 우수기관 분야별 최우수상 및 공로상 수상기관(질병관리청장상)>

- **[결핵환자관리 |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]** 다제내성결핵 환자관리, 외국인 환자 중점관리, 업무종사 일시제한 관리, 맞춤형 사례관리 등 환자관리 전반에서 우수한 실적
- **[비순응·입원명령 환자관리 |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]** 치료 중단 우려가 큰 비순응 환자와 입원명령 환자를 지속 관리하여 치료 완료를 지원
- **[집단시설 접촉자조사 |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]**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율과 치료 시작·완료율이 높아 추가 전파 차단에 기여
- **[가족 접촉자조사 |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보건소]** 가족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시작·완료율을 높여 가정 내 전파 예방에 기여
- **[공로상 | 대구의료원]** 취약계층 결핵환자 지원사업인 결핵안심벨트 참여기관으로, 경제적 어려움이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결핵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고, 유관기관과의 적극 협력으로 결핵환자의 의료·복지 안전망 강화에 기여

* [우수상 수상기관] 서울 영등포구(결핵환자관리), 울산 울주군(비순응·입원명령 환자관리), 경기 시흥시·화성시 만세구(집단시설 접촉자조사), 서울 노원구(가족 접촉자조사)

의료기관 부문에서는 **결핵관리 권역 최우수상에 서울 중부권역**이, **기관 최우수상**은 **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**이 선정됐다. 이들은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, 치료 중단 위험이 높은 환자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, 접촉자 검진으로 추가 전파 차단에도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. **국립마산병원·국립목포병원·국립중앙의료원** 등 **공공의료기관도 우수기관**에 이름을 올렸다.

다제내성결핵 관리 분야에서는 **경상권역이 권역 최우수상**을, **중앙대학교 광명병원**과 **부산대학교병원**이 **우수상**을 받는다. 이들 기관은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적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,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, 체계적인 환자 관리 자료를 기반으로 치료 성과를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"**결핵 발생이 1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** 진료실과 보건소에서 환자 한 분 한 분의 치료 완료를 위해 노력해 온 **현장의 헌신 덕분**"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이어, "앞으로는 고령·외국인·약제내성 환자 등 보다 **세심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**"라며, "그간 쌓아온 민·관 협력의 신뢰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**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**하고, **결핵 퇴치를 향한 다음 단계도 함께 준비**해 나가겠다"고 강조했다.

<붙임> 1. 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개요
2. 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세부일정
3. 결핵관리 우수기관 포상 대상 기관

담당부서	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지영	(043-719-7310)
		담당자	연구관	이소담	(043-719-7325)
			연구사	정윤희	(043-719-7329)
관련기관	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	책임자	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단장	박재석	(02-6326-3825)
			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운영위원장	심태선	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**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개요**

□ 사업 목적

○ **정부와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**하여 결핵환자 **치료성공률 향상 등 철저한 결핵 관리** 추진

* ('07) 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시범운영(11개 의료기관) → ('11) 전국 실시, 97개 → ('16) 128개 → ('20) 164개 → ('23) 187개 → ('26) 178개

□ 사업 내용

○ 보건소 등 **지자체**와 **PPM 참여 의료기관**에 **결핵관리전담인력을 배치**하고, **결핵환자** 및 **잠복결핵감염자**를 치료 **완료까지 철저히 관리**

결핵관리전담인력 ('26년 기준)	배치기관	업무
결핵관리전담요원 (595명)	지자체	△PPM 미참여 의료기관 환자 관리, △취약성 평가 및 맞춤형 사례관리, △비순응 및 다제내성결핵환자 관리 (입원·격리치료 명령), △직접 복약확인, △업무종사 일시 제한, △집단시설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 △관내 의료기관 대상 결핵업무 협조 등
결핵관리전담간호사 (294명)	PPM 사업 참여 의료기관	△ 취약성 평가 및 사례조사 수행, △결핵환자 복약 및 부작용 관리, △입원명령 환자 관리, △다제내성 결핵환자 신약사전심사 신청 및 관리 등

□ 관리 현황('25년 기준)

○ **174개 PPM 사업 참여 의료기관***에서 **75.8%**(12,934명) **결핵환자 관리**

* '결핵제로 홈페이지(tbzero.kdca.go.kr) > 의료기관 검색'에서 확인 가능

< 기관별 결핵 전체환자 신고 현황 >

구분	기관		환자	
	기관수(개)	비중(%)	전체환자수(명)	비중(%)
계	970	100.0	17,070	100.0
PPM 의료기관	**174**	**17.9**	**12,934**	**75.8**
그 외 의료기관	734	75.7	3,982	23.3
보건소	62	6.4	154	0.9

* 자료원: 「2025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」의 결핵환자 신고 자료를 토대로 질병관리청 분석

붙임 2 **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세부일정**

< 2026년 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평가대회 >

○ 일자 : **2026년 11월 3일(화)**

○ 장소 : 서울드래곤시티(서울시 용산구 소재) 그랜드볼룸 한라(컨벤션타워 3층)

1. 등록	
10:00 ~ 10:30	**참석자 등록**
2. 기념식	
10:30 ~ 10:40	**오프닝** 결핵 정책 소개 및 현장 취재 영상
10:40 ~ 11:30	**개회 및 국민의례** 사회 : **민진수 교수**(가톨릭의대)
	인사말씀(5') **<영상> 임승관 청장(질병관리청)**
	축사(5') **유광하 이사장**(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)
	포상(30') **결핵관리 우수기관 공공부문 포상(질병관리청 국장)** 결핵관리 우수기관 민간부문 포상(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)
	기념촬영(10') **수상자 및 주요 인사**
11:30 ~ 12:10	한국 근현대 미술과 문학의 만남 <<살롱드 경성>> 김인혜 작가(前,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 실장)
12:10 ~ 13:00	**점심 식사**
3. 심포지엄	
세션 Ⅰ. 국가 결핵관리사업의 성과 및 과제 **좌장 : 홍정익 국장 (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)**	
13:00 ~ 13:15	**민간·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성과와 미래**: 지속가능한 결핵관리를 위한 장기전략 김지영 과장 (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)
13:15 ~ 13:35	**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장기 전략 수립 연구** 우하린 교수 (인하대 행정학과)
13:35 ~ 13:50	**국내 약제내성 결핵균 유행 현황** 김준영 과장 (질병관리청 세균분석과)
13:50 ~ 14:05	**질의응답 및 휴식**
세션 Ⅱ. 데이터 기반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의 현황 및 발전방안 **좌장 : 박재석 교수 (민간·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단 단장, 단국의대)**	
14:05 ~ 14:25	PPM 사업단의 중앙 통계분석팀의 역할과 자료 소개(코호트 연구 소개) 민진수 교수 (가톨릭의대)
14:25 ~ 14:45	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표 분석과 목표 미도달 의료기관 개선활동 양범희 교수 (충북의대)
14:45 ~ 15:05	전향적 코호트 자료를 활용한 결핵현황 분석(역학) 오지연 교수 (고려의대)
15:05 ~ 15:20	**질의응답 및 휴식**
세션 Ⅲ. 다제내성결핵 치료 제도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**좌장 : 심태선 교수 (다제내성결핵 컨소시엄 위원장, 울산의대)**	
15:20 ~ 15:40	다제내성결핵 신약 사전심사제도 현황 및 발전 방향(10년사 요약) 심태선 교수 (울산의대)
15:40 ~ 16:00	다제내성결핵 치료의 최신 근거: WHO 2026년 권고와 최신 임상연구 목정하 교수 (부산의대)
16:00 ~ 16:20	다제내성결핵 환자 관리 사례 황진숙 간호사 (국립목포병원)
16:20 ~ 16:30	**질의응답**
16:30	마무리 말씀 및 폐회 **홍정익 국장 (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)**

붙임 3 **2026년 결핵관리 우수기관 선정 결과**

□ 결핵관리 우수 지자체 및 유공기관 [질병관리청장상]

연번	분야	종류	수상기관
1	결핵환자관리	최우수	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
2		우수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
3	비순응·입원명령 환자관리	최우수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소
4		우수	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
5	집단시설 접촉자조사	최우수	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
6		우수	경기도 시흥시 보건소
7		우수	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보건소
8	가족 접촉자조사	최우수	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보건소
9		우수	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
10	특별상		서울특별시
11	공로상		대구의료원

□ 결핵관리 우수 의료기관 [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장상]

연번	구분	종류	수상기관
1	권역	최우수	서울중부권역
2		우수	인천권역
3			경남권역
4			대구권역
5	기관	최우수	인천성모병원
6		우수	건양대학교병원
7			영남대학교병원
8			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
9			국립마산병원
10			국립목포병원
11			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
12			국립중앙의료원
13			충북대학교병원
14			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
15			한양대학교 구리병원

□ 다제내성결핵관리 우수 의료기관 [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장상]

연번	구분	종류	수상기관
1	권역	최우수	경상권역
2	기관	우수	중앙대학교 광명병원
3			부산대학교병원